

자고나면 문닫는 식당·술집…바닥 경기 최악

광주 구도심 폐업·개업 되풀이…무더위에 발길도 ‘뚝’

프렌차이즈만 즐비…금호월드 하루 택배물량 79% 줄어

지난 9일 밤 10시 광주시 동구 남동, 옛 구시청 사거리 일대에는 손님을 끌기 위한 호객꾼(일명 ‘빠끼’) 10여 명이 모여 있었다. 손에 엽소 홍보용 전단지지를 가득 든 이들은 가게 홍보에 열을 올렸다. 이곳에서 만난 한 호객꾼은 “최근 광주 구도심 경기가 너무 나빠 이렇게 길거리에서 손님을 직접 데려가지 않으면 전혀 장사가 되지 않는 실정이다”고 말했다. 이들의 노력과는 달리, 손님을 가게로 데려가는 이들은 없었다. 사람이 몰려야 할 토요일 저녁이었지만 구시청 일대를 찾은 손님의 눈에 띄게 줄었다. 이곳 일대의 술집들 풍경도 마찬가지였다. 술집 업주들은 “그렇지 않아도 경기가

하고 있다는 게 이곳 상인들의 말이다. 이 때문에 구시청 일대에서는 공사가 끊이지 않고 있고, ‘리모델링 업자만 돈을 번다’는 웃지 못할 말까지 흘러나오고 있다. 특히 소비자의 관심이 높은 유명 프랜차이즈 업소만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자금력이 부족한 업체는 매출이 줄어드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현재 구시청 일대에는 유명인이 운영하는 다수의 프랜차이즈 업체 10여 곳이 성업을 하고 있고, 날이 갈수록 이 수가 늘어나고 있다. 최근 매상이 오르지 않아 일시적으로 문을 닫는 곳도 나타나고 있다. 여름철 비수기에 인건비와 유지비라도 줄여겠다는 상인들이 늘어 구시청과 충장로 일대의 일부 옷가게와 카페는 문을 닫고 있다. 또 2~3층을 함께 쓰는 충장로 카페의 경우 월세라도 벌여보겠다는 생각에서 아예 가게문을 닫은 뒤 건물 1층 출입구에

노점을 펴고 음료를 판매하고 있다. 구도심에 몰려 있는 휴대전화 업체들도 힘든 여름을 보내고 있다. 단통법(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휴대전화 구입을 유도하는 지원금이 제한돼 손님들의 발길이 끊겼다. ‘바닥 경기 침체’는 다른 지역도 비슷하다. 광주시 서구 삼무지구와 첨단지구 등 구매력이 있는 소비자들이 몰리는 상권에서도 매출이 급감하고 있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이들 지역에서도 “장사 되는 곳만 돈을 벌고 인기가 없는 곳은 하루 2~3 테이블 맞기도 힘들다”고 설명했다. 새 휴대전화를 찾는 손님이 줄면서 광주 금호월드와 거래하던 오토바이 택배비스 업체들도 울상이다. 수년 전 하루 70여건에 달했던 금호월드 휴대전화 상점들의 배송 문이 최근에는 15건으로 줄었기 때문이다. /오광록기자 kroh@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1991.23 (+2.69)	금리 (국고채 3년) 1.22% (0.00)
↑ 코스닥 699.40 (+2.15)	↑ 환율 (USD) 1148.00원 (+1.30)



광주공판장, 농협 최고 영예 ‘총화상’

시장 점유율·사업 성장률 1위…전국 최고 공판장으로

농협광주공판장(사장 이태형)은 12일 “최근 농협 창립 55주년 기념행사에서 농협 내 최고의 상으로 불리는 ‘총화상’을 수상하며 전국 최고의 공판장으로 거듭나게 됐다”고 밝혔다. 광주공판장은 지난해 서부도매시장 최초로 연매출 1300억원 이상 거두는 높은 성장률을 보였고, 투명한 사업추진으로 시장 점유율도 1위를 차지했다. 올 상반기 전국공판장에서 최근 2년 동안 사업성장률 1위를 유지하고 있다. 올해도 광주공판장은 지난해보다 100억원 이상 더 많은 1400억원을 사업목표로 정하고 규모화된 산지조직과 각종 거래처를 대상으로 전략적 MOU를 체결하는 등 활발한 마케팅도 강화하고 있다. 또 중도매인협의회와 업무협약 체결로 중도매인의 판매역량도 더욱 강화하고 있고 정가·수의매매 내실화를 통한 선도공판장 구현을 위해 산지연합조직 및 추산지 조직과 연동 상시 정가·수의매매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밖에 산지의 규모화를 촉진하고 지속적이고 체계화된 정가·수의매매 정착으로 공판사업의 체질개선과 내실화를 통해 선도공판장 구현에도 앞장서고 있다. 특히 기상이변으로 인한 채소류 수급 불안 대응방안도 강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 계절품목 등 구색품목을 강화하고 분신능력 제고와 시기별 주요품목 및 규모화된 산지전문조직과 정가·수의매매도 확대 추진하고 있다. 이태형 사장은 “광주공판장이 제값에 잘 팔아주는 공판장과 농산물 유통의 선두주자로서 농업인과 소비자에게 실익을 주는 판매농협 구현에도 적극 앞장설 것이다”면서 “전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품격있는 공판장 만들기 운동도 펼쳐 급변하는 유통환경과 도매시장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품격있고 투명한 사업운영으로 농업인과 소비자들로부터 인정받고 사랑받는 공판장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한전은 12일 오전 한전 본사에서 2016년도 제4기 ‘KEPCO 대학생 서포터즈’ 발대식을 가졌다. <한전 제공>

한전 대학생 서포터즈 발대

한국전력은 12일 나주 본사에서 전력 서비스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찾아낼 대학생 서포터즈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서포터즈는 전국 150명의 대학생으로 구성됐으며 이달부터 11월까지 5개월간 활동한다. 이들은 온·오프라인에서 한국전력의 서비스와 제도를 국민에 알기 쉽게 전달하는 소통메신저 역할을 맡는다. 또한 정기적인 과제를 수행하면서 전력사업 현황을 경험하고 대학생의 시각에서 전력서비스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도 제시하게 된다. 발대식에서는 조환익 한전 사장과 학생생들이 참여한 토크 콘서트 등 다양한 행사도 마련됐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보해 복분자주, 첫 여성모델로 2030 공략

‘걸스데이’ 유라 발탁

보해 복분자주 역사상 첫 여성 모델이 탄생했다. 보해양조주(대표이사 임지선)는 ‘보해 복분자주’의 모델로 인기 아이돌 스타인 걸스데이의 유라를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 복분자가 남성의 힘을 상징하는 만큼, 보해복분자주의 역대 모델은 박력 있고 터프한 이미지의 차승원, 정준호, 장혁 등 남자 배우가 독식하고 있었다. 6년 만에 재개하는 광고 캠페인에서는 여성미와 발랄함을 고루 갖춘 유라로 브랜드 모델을 전격 교체함으로써, 기존 보해복분자주 이미

지에도 변화를 준다는 계획이다. 보해양조주는 젊고 건강한 여성 모델을 통해 기존의 남성 전유물적인 이미지에서 벗어나, 복분자의 달콤하고 부드러운 맛과 피부미용 등의 효능을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유라의 상큼 발랄함과 섹시한 이미지 등 다양한 매력에 보해복분자주의 소비자층을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과 젊은 층까지 확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유라는 최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서도 보해복분자주의 모델이 됐다는 소식을 알려 네티즌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 보해양조주 관계자는 “복분자의 깊은 맛과 향으로 사랑 받아온 ‘보해복분자주’와 매혹적인 외모와 생기 넘치는 이미지로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는 유라가 공통 분모를 갖고 있어 최상의 조합을 이룰 것”이라며 “유라와 보해복분자주가 만나 만들어 나갈 전통과 현대를 잇는 새로운 브랜드 이미지를 기대해달라”고 밝혔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상반기 부가세 신고·납부 27일까지

국세청은 오는 27일까지 2016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일반과세자는 지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부가세를, 법인사업자는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부가세를 각각 신고하고 납부하면 된다. 이번 신고 대상자는 일반 375만명, 법인 79만명으로 총 454만명이다. 작년 상반기 확정 신고를 한 432만명보다 22만명 늘었다. 간이과세자는 작년 1년간 납부세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예정부과세액을 납부하면 된다. 그러나 휴업 및 사업부진 등으로 올 상반기 공급가액이나 납부세액이 작년의 3분의 1에 미달하면 예정 부과세액을 납부하지 않고 상반기 사업실적을 별도로 신고해 내면 된다. 부가세 전자신고는 이달 2일까지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할 수 있다. /최재호기자 lion@연합뉴스

선착순 동·호지정 계약

동림동 프리미엄시대를 알리는
광신프로그레스를 지금 만나보십시오

동림동 광신프로그레스

GwangShin Apartment

광주가 꿈꿨던 퍼스트클래스 라이프

76㎡, 82㎡, 84㎡ 총 234세대

계약금 5% 정액제

발코니확장 무료시공

중도금 무이자

전세대 알파공간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본 아파트는 지역주택조합이 아닌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보증하는 **안전한 일반 분양 아파트**입니다.

문의 062

511-1141

시행 |주|에이치원

시공 (주)광신종합건설

※ 본 홍보물이 사용된 이미지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이미지였으므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단지 수변 교통시설 및 수변 현상은 인허가 및 정부시책에 따라 변경 및 취소 가능하며, 실제와 차이가 있으므로 현장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